

서울시 조선족 밀집지역과
거주 공간 확대에 대한 연구*
-가리봉동·구로동·대림동을 중심으로-

박재영**·강진구***

- I. 머리말
- II. 연구방법
- III. 국내 조선족 사회의 특징
- IV. 서울시 조선족 밀집지역 현황
- V. 밀집화·거점화로 인한 사회양상
- VI. 맺음말

국문요약

2015년 11월 현재 약 186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는 급격하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국내 거주 중국동포는 615,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중에서 33%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약 7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현재 가리봉동, 구로동, 대림동 등에는 중국동포 중심의 상업가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광진구 자양동, 신림동, 구리시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국동포들이 특정 지역에 상업가로를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8A01053851).

** 주저자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연구교수.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조교수.

형성하였다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동포 사회의 밀집도와 거점화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주민과 중국동포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고, 중국동포 내부 또한 분화하여 여러 갈등 양상을 표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중국동포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문헌조사·심층면접(인터뷰)·참여관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서울시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형성 원인과 거주 공간의 확대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거주 타 외국인과 달리 중국동포들은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들을 환대하기보다는 불편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인과 중국동포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호 인식에 대한 변화와 함께 중국동포에 대한 법적·행정적인 토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동포들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주로 그 안에서만 삶을 영위한다는 점은 그들이 한국 사회에 순조롭게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양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국내 거주 중국동포들은 자신들을 향한 한국인들의 차별과 편견에 대해 좌절과 분노 그리고 불평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는 장차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 다문화 제국이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나 불안 요소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주제어 : 조선족, 밀집지역, 거주 공간, 가리봉동, 구로동, 대림동.

I. 머리말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이동은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의 필연적인 증가를 가져왔으며, 다양한 문화의 유입으로 자국민과 외국인 간의 사회적 통합을 고민해야 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에서 드러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국가 내에서 벌어지는 인종적·종교적 문화충돌 현상이다. 특히 일찍이 근대적 국민국가를 형성했던 유럽 국가들은 국내적으로 무슬림 이민자들과의 문화충돌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인종적·종교적 갈등과 편견을 넘어 심지어 테러와 소요사태

까지 야기하고 있다.¹⁾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도 2015년 11월 현재 약 186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급격하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국내 거주 조선족은 615,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중에서 33%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무직 근로자들보다는 경제적 생존을 위해 이주한 단순 기능 인력들이다.²⁾ 한·중수교가 체결된 1992년 직후부터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에 체류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 방문 취업제가 시행된 이후 더욱 증가해왔다.

조선족 동포들은 국적은 중국이나 그 뿌리는 한국이다. 즉 한국의 문화를 일부 공유하고 있는 중국인인 것이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중국 조선족 동포들은 타 외국인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차별과 편견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³⁾ 이는 분명 사회 통합에 해를 끼치는 요소인 셈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한국은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실태와 그들의 사회 적응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사회 적응과 참여에 도움이 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진행된 조선족에 대한 연구는 개별 연구자의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기 수행된 공동연구의 경우도 단일 학문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⁴⁾ 따라서

-
- 1) 박제영, 「유럽 다문화사회의 문화충돌: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다문화연구』 창간호,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08, 108-109쪽.
 - 2) 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2014 참조.
 - 3) 임광순, 「국내 조선족 범죄의 실재와 방향성」, 『역사비평』, 111, 역사비평사, 2015, 358-359쪽.
 - 4)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조선족 관련 연구는 조선족 정체성 연구, 조선족과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연구, 조선족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연구, 조선족 범죄 연구, 조선족의 재현 양상, 한국인과 조선족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 등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조선족 정체성 연구의 경우, 정착한 지역의 트랜스로컬화를 통한 자기 정체성 형성 및 조선족 결혼 이주여성의 이주와 관련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둘째, 조선족과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국인과 조선족의 사회적 거리감의 비교연구 및 일자리를 사이에 두고 한국인과 조선족의 대결하는 현상에 주목하는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셋째, 조선족 밀집거주지에 대한

다양한 학문 연구자가 참여한 지속적인 중단연구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통합과 통섭의 성격을 가진 거시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연구는 문헌중심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양적 및 질적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이 매우 적거나 한정되어 있다.⁵⁾ 따라서 문헌조사와 양적·질적 조사의 경우 연구 대상을 넓히고 에스닉 그룹과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현장 중심형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조선족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문헌조사·심층면접(인터뷰)·참여관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서울시 조선족 밀집지역의 형성 원인과 거주 공간의 확대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였다. 머리말에 이은 제2장에서는 조선족의 한국으로의 유입 원인과 특징을, 제3장에서는 서울시 조선족의 밀집 현황을 가리봉동, 구로동, 대림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조선족 밀집지역의 위치성에 대한 연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조선족의 밀집거주자 한국인과의 사회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다. 넷째, 조선족의 범죄만을 다룬 연구는 아직 부재하지만, 외국인 범죄의 한 분류로써 조선족 범죄를 다룬 연구 등이 있다. 다섯째, 조선족에 대한 재현 연구로는 한국문화 전반에서 조선족은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가를 문학작품, 영화, 뉴스 등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여섯째, 한국인과 조선족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사회적·공간적 연결망으로서의 트랜스 로컬리티의 특성과 조선족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 박세훈·이영아, 「조선족의 공간집적과 지역정체성의 정치 -구로구 가리봉동 사례연구」, 『다문화사회연구』 3(2), 다문화통합연구소, 2010, 71-101쪽; 이정은, 「재중동포 사회의 차이와 소통의 문화정치: 한국 내 조선족 커뮤니티의 구성과 교류」, 『민주주의와 인권』 11(3), 2011, 213-247쪽; 한성미·임승빈, 「소수민족집단체류지역으로서 연변거리의 장소성 형성요인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6(6), 2009, 81-90쪽; Wei, Hanbin, 「다문화 사회형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시 가리봉동 중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참조.

- 5) 안재섭, 「서울시 거주 중국 조선족의 사회, 공간적 연결망: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9(4), 2009, 215-223쪽; 원중서, 「서울시 거주 한국계 중국인의 주거지역 선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이미애, 「가리봉동 중국거리에서의 조선족 여성의 위치성에 대한 문화, 지리적 연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이민주, 「재중동포의 상업 활동과 정체성 형성: 가리봉동 현장 연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참조.

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조선족의 밀집화·거점화로 인한 사회양상을 분석하였으며, 결론에서는 조선족 밀집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책적 대안 등을 제시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일차적인 작업으로 중국동포 사회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화되는 현상과 원인에 대한 파악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밝히기 위해 문헌조사와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s), 참여관찰 방법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조사는 2015년 8월부터 12월 까지 5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1. 문헌조사

문헌조사는 국내 거주 중국동포에 대한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온·오프라인 중국동포 활동단체, 인터넷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 ▶ 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 ▶ 정기간행물: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10개 주요 신문사. 시사in, 한겨레21,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등 주요 시사 주·월간지).
- ▶ 방송자료: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사(중국동포 관련 제작 프로그램).
- ▶ 인터넷자료: 인터넷 신문, 블로그 등.
- ▶ 온·오프라인 중국동포 관련 단체(모임).
 - 온라인 중국동포 관련 단체: 현재 <조사모(중국동포를 사랑하는 모임)> 등.
 - 오프라인 중국동포 관련 단체: 현재 재한 중국동포 청년협회(KCYA) 등.

2. 심층면접(인터뷰)

심층면접은 다른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 내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면접을 통해 수집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사람의 프로파일을 만들어 그 사람의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유익한 경험이며, 인간 행동의 맥락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 심층면접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사회적 현안을 반영하는 개인들의 삶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사회적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내 거주 중국동포 관련 심층면접은 면접 대상을 중국동포와 내국인으로 이분하여 서울에서도 중국동포가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가리봉동, 구로동, 대림동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면접대상자 선정에서 중요한 점은 한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높은 표본을 선택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심층 면접 대상 내국인은 중국동포와 동거하고 있는 동거인(집주인 포함), 관할 경찰서 및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초·중·고교 교사, 상점주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섭외를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심층면접에 응한 사람은 내국인 교사 1인이다. 또한 심층면접 대상 중국동포는 연구초기 성별, 연령, 직업,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20명 정도로 정하고 섭외를 진행하였으나 실제 심층면접에 응한 사람은 9명이다(조사기간: 2015.08.01~2015.11.30).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심층면접 대상자는 전체 10명으로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심층면접 대상자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체류기간	면접(회)	구분
면접대상자 A	남	56	자영업	10년 이상	3회(회당 90분씩)	중국동포
면접대상자 B	여	49	대표이사	25년 이상	3회(회당 90분씩)	중국동포
면접대상자 C	여	65	환경미화원	12년 이상	3회(회당 90분씩)	중국동포
면접대상자 D	남	52	직업소개소	10년 이상	2회(회당 90분씩)	중국동포
면접대상자 E	여	24	여행사직원	1년 이상	3회(회당 90분씩)	중국동포

면접대상자 F	남	18	학원생	6개월	1회(회당 90분씩)	중국동포
면접대상자 G	남	18	고등학생	5년 이상	3회(회당 90분씩)	중국동포
면접대상자 H	여	18	고등학생	2년 이상	3회(회당 90분씩)	중국동포
면접대상자 I	여	17	고등학생	2년 이상	3회(회당 90분씩)	중국동포
면접대상자 J	여	42	교사	한국출생	1회(회당 90분씩)	내국인

[표 1]에서와 같이, 심층면접은 1,2주 간격으로 3차(일부 1,2차)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면접시간은 90분이다. 3차에 걸친 심층면접 내용으로 1차 면접에서는 태어나서 한국(현 거주지)으로 오기까지의 생애사에 집중하였다. 2차 면접에서는 현재 거주지에서의 삶(직장, 가정, 일상)을 구체적인 문항으로 만들어 질문하였으며, 3차 면접에서는 자신의 경험(현재 거주지에서의 삶)이 갖는 의미와 미래에 대한 견해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목적형 의도적 표집방식(단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직업소개소 등)과 눈덩이표집 방식을 혼용하였다. 또한 면접 대상자들에게는 <연구참여 동의서>와 <연구 참여자 개인 식별정보>를 통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정보는 향후 서울시 중국동포 밀집 거주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주시시켰다. 아울러 개인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관련법이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에서 본인의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공개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유지가 될 것임을 공지하였다.

3.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하나의 현상을 내부로부터 이해하려는 접근으로서 어떤 집단의 문화현상을 좁고 깊게 파악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의 행동이나 경험과 의미에 관심을 가지는 공간의 내면을 가장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국동포 사회가 서울에 착근되는 현상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내면에서부터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기술지(ethnography)와 Tolzman(1978)의 참여관찰을 위한 사회적 상황 5가지 기준(단순성, 접근용이성, 비노출성, 허락 가능성, 빈번히 발생하는 활동)을 참조하여

참여관찰, 비참여 관찰, 수동적 참여관찰, 중간 참여관찰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가리봉동, 구로동, 대림동 내 중국동포 사회에 대한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참여관찰법은 대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찰이 요구되지만, 연구기간의 제한(5개월)으로 인하여 총 2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참여관찰을 통하여 서울시 중국동포 밀집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공간구조 및 일반현황을 파악하였다. 2차 참여관찰에서는 심층 참여관찰을 실시하면서 주거형태 및 상가형성 파악, 인터뷰 조사, 사진촬영 등을 진행하였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의 연구는 조사대상 제한으로 국내 중국동포 거주 지역에 대한 총체적 연구가 미진하고, 문헌분석 중심의 연구가 진행(표집방법, 설문조사, 심층면접, 참여관찰 미진)되었다. 국내 거주 중국동포 거주공간의 형성, 실태, 공간 확대에 대한 거시적 분석이 없었다.

본 연구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조사를 통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울시 중국동포 거주 지역을 3분(가리봉동, 구로동, 대림동)하여 국내 거주 중국동포 현황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심층면접과 참여관찰 방법을 통하여 국내 거주 중국동포 거주 지역 형성, 실태 및 확대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내국인과 중국동포의 상호 표상체계(편견, 고정관념)를 파악하여 소통방법 제시하여 한국 다문화 사회통합의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Ⅲ. 국내 조선족 사회의 특징

조선족은 중국 동북지방의 요녕(遼寧, Liaoning)·길림(吉林, Jilin)·흑룡강(黑龍江, Heilong Jiang)등 동북 3성과 그 밖의 중국 땅에 흩어져 거주

하고 있는 한민족 혈통을 지닌 중국 국적의 주민을 말한다. 이들은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중 하나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비롯한 동북지방의 여러 자치지역에 2010년 현재 약 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조선족은 기본적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에 만주로 이주한 한인들의 후손으로 동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⁶⁾

한인의 만주로의 이주는 조선 말엽, 전란과 자연재해 등으로 척박해진 환경을 벗어나 비옥한 지역을 개간하려는 생존을 위한 이주로부터 시작하여, 1910년 이후 일제의 탄압을 피하거나 항일운동을 위해 만주행을 택한 정치적 이주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광복이전에는 약 200만에 이르는 재중 이주민이 존재했다. 그러나 광복 이후 그중에서 100만 명만이 귀국하고, 나머지는 여러 이유로 중국에 계속 머물게 되었다. 이들 중 다수가 현 조선족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이후 조선족은 중국에 사회주의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 동북지역의 개발·발전과 반일투쟁 및 사회주의 정권 수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50년대에 들어 연변에 조선족 자치주를 설립할 수 있었다. 냉전시대에 정치적·이념적 이유로 단절되었던 재중 조선족과 한국과의 교류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된 1980년대 이후 다시 시작되었다. 1982년 중국이 조선족의 한국 친척방문을 공식적으로 허가하여 비자발급이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과 1992년 한·중수교 이래 10여 년간 재한 조선족의 수는 매년 급증해왔다.⁷⁾

1. 한국으로의 유입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한국으로의 유입은 1992년 한중국교 수립 이후 본격화 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념의 차이로 몇 십년간 중국과 한국은 외교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 그러나 1986년 아시안게임과

6) 설동훈,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 -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전망』, 52, 2002, 200-201쪽.

7) 김석배, 「중국 조선족의 문화특질」, 『한국동북아논총』 4, 1997, 413-415쪽.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로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이후 한·중 국교 정상화가 실현되었다.⁸⁾ 이후 한국 정부는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산업연수생제도를 실시했고 중국 동포들은 한국에서 일하면 중국에서 몇 십 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할 돈을 단 몇 년 사이에 벌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불법적인 방법들이 동원되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한국 정부는 중국 동포들을 불법 체류 우려가 있는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그들에게만 외무부가 아닌 법무부에서 ‘사증발급허가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2년 당시 조선족 사회 노동자의 평균 인건비는 월 3만원인 반면에 한국은 당시 월 80여만 원 수준이었고, 중국에서 1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한국에서 1년 만에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중국 동포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1996년 초청장 사기 사건으로 인해 약 1만 7천여 명의 조선족들이 사기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중국동포 사회에서는 심한 반한감정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의 조선족 정책 변화가 여러 차례 <재외동포법>의 개정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2004년부터 시행되었던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초기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체하면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이 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가 생겼다.⁹⁾

법무부의 등록외국인(합법체류자) 현황에 의하면 1999년 전체 외국인 중 12%에 머물던 조선족은 2007년 말 현재 294,173명으로 전체의 35%에 이르렀다. 결혼 이민자수도 36,632명으로 전체 결혼 이민자의 3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통계에서 조선족은 국내 거주 외국인 전체의 1/3에 이른다. 이 중 79.68%(2005년 인구총조사)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외국인(22%)에 비해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가리봉동을 포함한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일대와 안산시 등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모습도 변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중국 식

8) 김욱, 「중국 조선족의 한국, 한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0-11쪽.

9) 김욱, 앞의 논문, 32-39쪽.

품점과 양꼬치, 양고기 샤브샤브 등을 파는 중국 음식점 등이 늘어서 있어 마치 중국의 변화가를 방불케 한다.

조선족들은 “가리봉동에서 설을 쇠고”¹⁰⁾, “(안산) 원곡동거리에는 중국 식품점 70여 개가 성업 중”¹¹⁾이며, 이들 지역 외에도 수원역 상권에 까지 ‘차이나 열풍’이 불어 여행사 등 다양한 업종 50여 곳이 성업 중이다.¹²⁾ 최근의 조선족 체류자 현황을 살펴보면, 조선족 체류자 수는 2009년 증가폭이 거의 없었고, 2012년에는 오히려 체류자 수가 감소했다가 2013년에는 다시 증가했다.¹³⁾ 법무부의 등록 외국인 현황에 의하면, 남녀비율에서 조선족 여성은 2001년부터 남성 체류자를 추월, 2006년 말 현재 117,688명으로 조선족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조선족을 뺀 나머지 외국인 여성의 성비가 35%인 점에 비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국내 조선족의 특징

국내 거주 조선족이 한국사회 내의 다른 소수자 집단과 가장 차별되는 다른 점은 종교단체와 함께 ‘동포’로 인정받기 위한 ‘인정투쟁’을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교회의 지원을 받은 서울 조선족 교회를 중심으로 약 2,300여 명의 조선족이 단식농성을 전개하였으며, 2003년 11월 대통령이 농성장을 방문하였고, 2004년 재외 동포법이 개정되면서 조선족과 고려인들은 법적으로 재외동포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 조선족이 구제되었으며, 이후 합법적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선족은 중국 공민이면서 한국인과 같은 민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중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즉, 조선족은 외국인 노동자와 다른 집단이 되었으며 한국인-재외동포-외국인 노동자라는 제도적 층화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¹⁴⁾

10) 중앙일보, 2008.02.04.

11) 뉴시스, 2007.03.06.

12) 세계일보, 2007.12.02.

13) 가상준·김재신·임재형,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감과 관용」, 『분쟁해결연구』 12(1), 2014, 67-68쪽.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청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점에 집중하기보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주류 사회, 주류 문화에 어느 정도는 참여해야 가능하다. 한국에 거주중인 많은 조선족 동포들은 한국에서 기본적인 사회관계망이 형성되어있기는 하지만 별도로 지역 문화센터나 자녀 학교 모임 등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주변인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조선족 동포들은 전반적으로 일 이외의 한국 주류문화와의 접촉이 매우 적거나 전무함을 알 수 있었다. 국내 거주 중국 조선족 동포들은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학원이나 문화기관을 통해 내국인과의 접촉도 적었다. 그나마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 한국인들과의 꾸준한 접촉과 교류가 있지만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등 소극적이며 대부분의 사교활동 네트워크가 조선족 동포들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IV. 서울시 조선족 밀집지역 현황

1. 가리봉동

1990년대 들어 고도성장의 시대가 끝나가자 구로공단은 사업체가 해외로 이전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등 쇠퇴의 길을 겪기 시작하였고, 가리봉동도 그 영향을 받았다. 기업들이 공단을 떠나자 기존의 노동자들이 떠났고, 한·중수교로 국교가 맺어진 중국에서 조선족 동포들이 유입되며 거주민 구성원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후 공단은 기존의 제조업에서 IT를 비롯한 첨단산업 단지로의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졌으나 가리봉동은 재개발에서 제외되며 노후화를 겪었다.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조선족의 인구가 늘어나며 가리봉시장을 비

14) 박우, 「한국 체류 조선족 '단체'의 변화와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 『경제와사회』 91, 2011, 244-245쪽.

롯한 상권은 구로공단의 한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조선족을 상대로 하는 업종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조선족에게 필요한 물품을 취급하는 업종이나 유흥업소 등이 늘어나는 한편, 한국 식료품 등을 취급하는 곳은 감소하거나 자취를 감추었고,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가 가리봉시장에서 구로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으로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존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이 무산된 2015년 현재 가리봉동은 2013년에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아닌 주민 주도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의 일부인 ‘가리봉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대상으로 지정되어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4년 9월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무산된 가리봉동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구로공단에서 디지털단지 일대에 도시 재생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소통과 경청, 지역경제와 일자리, 주거환경과 편의시설, 안전과 치안이라는 4대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이는 조선족 동포가 가리봉동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동포와 내국인 간 화합을 도모하고, 치안 및 안전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주민과 조선족이 어울릴 수 있는 건강가족통합센터가 들어서며 골목길 보안등과 CCTV 등 치안시설을 확충하고 개발사업의 여파로 분열된 주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측백나무 축제를 계승·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주민과 조선족 간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민·조선족 교류방’도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현장소통마당’, 주민 소통·경청의 장인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조선족 동포와 내국인간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 특성을 살린 다문화마을과 옛 구로공단 노동자의 삶을 돌아보는 추억거리, 별집촌 체험거리를 조성하여 조선족시장과 연변거리는 현대화로 차이나타운처럼 명소로 거듭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리봉동이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사이에 있다는 특성을 살린 IT 청년 창업 관련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 종합 지원센터(가칭)’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노후 불량주택은 깨끗한 주거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기반시설 등 편의시설은 보수 및 개량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다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가리봉동의 도시재생이 이뤄지면 디지털단지

배후 기능으로 옛 역할을 다시 찾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계획은 서울시 최초의 도시재생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인데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의 여건을 반영해 수립한 것이다. 이 계획은 전면 철거하는 방식의 재개발이 아니라 정비와 보존, 지역 특성에 맞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다음으로 가리봉동의 조선족 주거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자. 조선족 동포들은 조선족거리 혹은 연변거리를 중심으로 약 220,000㎡에 걸쳐 살고 있다. 가리봉동은 1인가구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중국에 가족을 두고 홀로 온 한국계 중국인이 많음을 보여준다. 일하는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전국 각 지역에서 일하는 형태도 있는 것을 보면 가리봉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나 일자리를 찾아 각 지역으로 이동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거로 가리봉이 임시 주거지의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주로 5년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짧고,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수입은 2012년 기준 월 200만원 이하로 주로 단순 노무직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수입으로 인해 주택도 월세 및 보증금 없는 순수한 월세가 많은 편이다.

아울러 가리봉의 건물과 주택은 낙후되어 있고 밀도가 높은 편이다. 주택 유형은 대부분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이며, 일부 공동주택이 분포하고 있다. 단독과 다가구 주택 대부분이 쪽방 형태로 개조 및 증축되어 있고, 대부분의 쪽방 거주자는 조선족들로 채워져 있다.¹⁵⁾ 임대료는 싸지만 주거 면적이 부엌 없는 단칸방 정도로 매우 좁기 때문에 불만이 높다.

원래 가리봉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다는 장점으로 선호되었다. 하지만 균형발전 촉진사업, 재정비 촉진사업의 개발 예정지가

15) 방성훈,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의 특성과 주거지 분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가리봉동과 자양동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55-57쪽.

되면서 물리적인 쇠락이 가속화되었고 주변 지역사회에서 점점 고립되었다. 가리봉동에 가면 빈집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개발 예정지로 정해지면서 노후화된 건물은 개량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고, 결국 이는 물리적 낙후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조선족 상가 현황을 살펴보자. 조선족거리 혹은 연변거리는 가리봉시장 삼거리부터 시작해 공단 오거리까지 300m에 걸쳐있다. 밀집주거지에 상업지역이 함께 형성되어 있는 셈인데, 결국 주거 공간과 소비 공간이 함께 제공되는 복합적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변중앙거리에서는 가리봉시장을 볼 수 있는데, 가리봉시장은 조선족들이 저렴한 가격에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살 수 있는 곳이다. 연변거리의 각종 상업시설들은 식당, 술집, 식료품점, 의류점, 여행사, 미용실, PC방, 다방, 노래방, 직업소개소, 환전소 등 거주자들의 일상과 유흥에 필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리봉동은 노래방과 주점, 다방 등 유흥과 관련된 업종이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인다. 가리봉동에는 체류한 기간이 짧은 단기체류자가 많은데 이들은 단순 노무를 비롯한 수입이 적은 직업에 종사하고 한국사회의 적응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상 조선족 문화에 특정된 노래방과 주점 등을 통한 여가와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업시설 거리는 타 지역 조선족들도 방문하여 정보교류 및 만남의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2003년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 내국인 상점들이 많았으나 조선족들이 문화적 이질감 등을 이유로 이용하지 않았고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조선족 상점들로 채워지며 경영인과 이용 고객 대부분이 조선족이 되었고, 그래서인지 그들만을 위한 폐쇄적 공간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업시설은 아니지만 조선족에 집중하여 운영되고 있는 교회 등 종교시설과 조선족들의 노동인권 또는 다문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하는 사회단체들도 관련시설로서 조선족 밀집지역에 존재하고 있다.

2. 구로동

구로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속하며 인구는 약 14만 명이다. 이 지역은 근처 디지털단지의 근로자들과 편리한 역세권 때문에 수많은 유동 인구가 존재하는 곳이다. 구로동은 지난 개발 시기에 구로 수출 공단이 들어서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주해왔고 그에 따라 발전하면서 차츰 도시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1964년 ‘구로공단’이 설치될 당시에, 10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을 만큼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다. 그러나 한국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구로공단’이 ‘서울 디지털 국가 산업단지’로 바뀌었고,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했다. 이로 인해 한국인 노동자 보다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로동에 몰려들게 되었고 그들은 일자리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구로동 내의 저렴한 주택단지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 변화로 1987년 이후 노동자들이 대다수 구로동을 떠나면서 이 빈자리를 조선족들이 채우기 시작했다.

조선족들이 구로동에 자리 잡게 된 원인은 구로에는 7호선 남구로역과 2호선 대림역이 지나며 경부선과 경인선이 분리되는 지점에 놓여있고 경기도와 만나며 수원과 인천 방향으로 관통하는 국도로 인해 서울 남서부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로는 한때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중심지였고, 그에 따라 많은 인력이 필요하였던 곳이다. 과거 이러한 인력들은 지방에서 상경한 인력들로 7/8할이 충당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산업재편에 의해 공장이 폐쇄되고 노동력의 유출이 증가하면서 변화를 맞았고 이 과정에서 조선족이 유입되었다.¹⁶⁾

구로1동, 구로5동에 비해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의 주거시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상태다. 예전 구로공단에서 여직인들이 생활하던 소위 별집촌이라 불리는 다가구 주택과, 구로 시장 뒤편의 허름한 집들이 남구로역 근처로 많이 형성되어 있었다. 구로 2,3,4동의 경우, 구로동 내에서도 특히 외관상의 발전이 더디고 발전에서 배제된 지역으로

16) 이미애, 앞의 논문, 41-47쪽.

보인다. 거리에서는 중국어로만 되어 있는 간판을 걸어놓은 가게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구로중학교 뒤 쪽 골목에도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남구로역 근처는 구로동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조선족이 거주하는 곳이다. 조선족의 밀집 거주지에는 위에서 언급한 남구로역을 비롯해, 대림역,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등이 있다. 조선족이 이 지역에 몰리는 이유는 이들 지역이 모두 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2호선을 타고 신림, 봉천, 서울대입구, 강남역 등 서울 주요지역의 출퇴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세가 싼데다 이미 형성된 조선족 주거지를 기반으로 각종 기반 시설 및 편의시설 이용이 타 지역에 비해 용이한 점도 작용했다. 특히 이 지역은 집값이 서울의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로 2,3,4동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과거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 저임금 노동인력들이 거주했던 소위 쪽방촌과 같은 낡은 주택들이 즐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렇게 구로구에 조선족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구로구는 다른 구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구로구는 중국 동포들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다문화서포터즈단, 중국동포 칼럼이 봉사단도 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돕기 위해 구청 민원 여권과에 외국인 전담 민원 창구도 만들었다. 하지만 구로세무서가 조선족 집단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한국과 중국과의 문화차이가 문제지만 두 나라 세금 제도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조선족 납세자들을 이해시키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 일선 직원들의 설명이다. 한 직원은 “중국에서는 선불 개념이라 일단 집세를 내면 그곳에 관리비나 수도세, 각종 세금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며 “우리나라는 집세는 기본이고 전기, 수도, 각종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형태이다 보니 그 부분을 잘 이해 못 한다”고 전한다. 또 이들은 근로 장려금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해가 갈수록 한국인과 결혼하는 조선족들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이 늘고 있는데 법무부와 의 협조가 미흡해 납세자가 개인 정보를 전산으로 가져 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림동과 가리봉동 지역 대부분이 차이나타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조선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임에 비해 구로동은 대림동과 가리봉동 사이에서 한국인과 조선족이 공

존하는 지역이라는 현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 대림동

약 10년 전 까지만 해도 가리봉동이 조선족 최대 밀집 지역이었으나 가리봉동 재개발 정책 이 후로 가리봉동에 거주하던 조선족들이 대림동으로 대거 이동하였다. 조선족들의 주거 선호 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전·월세 값이 싼 곳이 중요한 요인인데 대림동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환승 지역이기도 하고 전·월세 또한 비싸지 않았던 점이 조선족들의 선택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을 것이다. 조선족들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는 다르게 서울 교외지역보다는 가리봉동이나 대림동과 같은 서울 시내에 주로 거주한 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조선족은 대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에 도심 안에서의 생활에 자신감을 심어 주었을 것이다.

대림2동 조선족 밀집지 형성은 일종의 ‘풍선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조선족 인구의 계속적인 집중이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합법적 지위 획득으로 인한 팽창, 불법체류자 단속의 집중으로 인한 위협, 가리봉동 재개발 이슈로 인한 불안 고조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¹⁷⁾

첫째, 합법적 지위획득으로 인한 팽창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는 가리봉 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조선족 음식점과 식료품점 등 조선족을 상대하는 상업시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이곳을 방문하거나 이주해오는 조선족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 하에서 2002년 시행된 법무부의 ‘불법체류자종합방지대책’은 조선족의 가리봉 주변지역으로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불법체류자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가 자발적인 과정에 의한 조선족 밀집을 확산시켰다면, 가리봉동에 집중된 불법체류자 단속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한 조선족 밀집의 확산을 야기한 원인이 되었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강화되었던 미등록 노동자 단속은 가리봉동

17) 이석준, 「조선족 밀집지의 형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서울시 가리봉동과 대림2동, 자양4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61-62쪽.

의 조선족 상권을 침체시켰으며, 조선족이 이 지역을 이탈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후에도 가리봉동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기에 인근의 대림동, 신대방동, 신림동, 봉천동 등지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

셋째, 가리봉동 재개발 이슈로 인하여 불안이 고조된 점이다. 가리봉동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의 변화로 인하여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03년 11월 가리봉이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이후 2013년 10월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묶여있다. 재개발지구 지정은 가리봉동이 조선족 밀집지로서 성장하는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가리봉동을 이탈하게 만들었으며, 가까운 대림동과 신림동으로 이주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대림2동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주로 한국인 주인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의 반지하나 옥탑방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건물 단위에서도 한국인 집주인과 지상 층의 한국인 세입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반지하와 옥탑의 조선족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넓은 면적에 걸쳐 저층 주택지가 고르게 형성되어 있어 조선족 주거의 공간적인 편중이 두드러지지 않다. 대림2동은 대림1동, 대림3동에 비해 거주환경이 열악하고 방세가 저렴하여 조선족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디지털로를 기준으로 대림역 쪽은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구로 디지털 단지역 쪽으로는 한국인이 많이 거주함으로써 서로의 생활경관이 확실히 다르다.

아울러 대림2동 상업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은 ‘음식점과 식료품점’이다. 통계적으로 인구 100명당 2.1개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조선족 밀집 지역보다 더 많은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과의 특이점으로는 직업소개소와 여행사 등 일자리나 행정업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내고 있어 타 지역들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대림2동은 중국 공상은행의 서울 3개 지점 중 한 곳과 중국은행의 서울 2개 지점 중 한 곳이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로써 대림2동은 명실상부한 서울시 조선족 사회의 중심지로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상

업시설들이 내국인 시설과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대림역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인 대림중앙시장에서도 한국인과 조선족 상점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가 나타난다. 대림동 중앙시장 골목을 들어가면 더 이상 서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다. 조선족 식료품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 주변 모든 다른 상권들이 조선족에 의해 점유 되어 있으며, 중국의 느낌이 물씬 난다. 그만큼 한국인에 비해 조선족의 이용 빈도가 높다. 한국의 최대 관광지 중 하나인 인천의 차이나타운과 같은 밀집 거주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한국인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다.

한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조선족 거리는 비위생적이고 시끄러운 공간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조선족 거리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매우 적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 밀집지역의 음식 상권은 점점 더 현지화 되어가고 한국적 요소와 분리된다. 음식의 맛 또한 연변의 음식문화 그대로 강한 향을 지닌 음식으로 판매 되고 있다. 대림동은 단기간에 형성된 서울 내 가장 큰 조선족 밀집 거주지이다. 서울 내에 존재하는 외국인 밀집지역—구로동, 가리봉동, 자양동 등—다른 조선족 밀집지역보다 중국 연변의 경관을 잘 재현해 놓은 지역이다. 대림동 내 중앙시장에서는 중국인들이 즐겨먹는 음식과 현지에서 볼 수 있는 용품 등을 팔고, 문화경관 역시 독특하게 형성 되어 있다. 중국 문화를 유지한다는 점은 장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대림동은 점차 조선족의 트랜스로컬화의 중심지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V. 밀집화·거점화로 인한 사회 양상

1. 조선족 밀집화로 인한 민족경관(ethnoscape)의 변화 모습

구로구 가리봉동과 영등포구 대림동에는 이미 음식점, 환전소, 여행사 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조선족 거리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현재 이들 지역의 거리에서는 큰소리로 말하는 중국어 대화를 자주 들을 수 있으며, 간자체로 쓰여진 간판, 중국식 요리와 향신료 냄새 등 중국풍의

거리경관이 나타나며 그들의 정체성이 밀집지역 내에서 재현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이른바 조선족 경제가 실현되는 장소로써 기능하기도 한다. 조선족 경제는 초기 이주자에게 정착지에서의 생활 정보와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므로 이주자는 동족 경제에 참여하며 자본, 노동, 정보를 얻고, 정착지에서의 자신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한다.¹⁸⁾

그렇다면 조선족의 밀집거주가 서울시 서남부권 민족경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고자 하자. 서울 서남부권은 현재 조선족들로 인해 이색적인 민족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간자체의 간판이다. 작은 간판에서 공식적 경고문 까지 모두 중국어로 쓰여 있으며, 특히 중국의 상징적 색인 붉은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눈길을 끈다. 음식점 뿐 만아니라 핸드폰 대리점, 여행사, 환전소 등 대부분의 간판도 대부분 중국어로 쓰여 있다. 실제 대림역 12번 출구로 나와 도림로 38길을 지나 디지털로 37길을 거쳐 디지털로 37나길로 빠지기 전까지의 상점을 조사한 결과 중국식 냉면, 중국 마라탕, 중국식 샤브샤브인 휘귀와 같은 중국 현지 음식을 파는 음식점과 휴대폰 할인마트, 미용실, 부동산 중개소, 각종 동포 지원 단체, 여행사, 행정사 사무소 등이 즐비해 있으며 이들 간판들은 대부분이 빨간 색 바탕에 중국어로 쓰여 있다.

이 같은 민족경관의 변화는 단순히 경관만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등에서도 변화를 초래했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족의 음식문화와 여가 생활의 전파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주로 한족과 조선족들의 향수를 달래주었던 중국음식들은 양꼬치나 마라탕, 그리고 베이징 덕 등에서 보듯이 점차 이들 조선족 밀집지역에서 맛볼 수 있는 이색 먹거리로 한국인들에게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렇다고 조선족의 문화가 모두 한국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조선족들은 저녁이면 공연 등에 모여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여가생활을 하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 한국인들은 매우 비판적이다.

18) 이화영, 「중국국적 이주자 밀집지역의 엔클레이브화와 게토화에 대한 연구: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56-58쪽.

우리 동포들 밤에 와서 노래도 하고 춤추고..... 시끄럽다 이거죠. 한국 사람들은 중국동포들을 보고 아주 미친 xx들이 와서 저러고 있구만, 막 이래 말한 다니까. 아우, 귀찮아 죽겠네. 저 xx들은 언제가 저거, 막 이렇게 한다고.....(A 씨 인터뷰).

한편, 가리봉동과 대림동에 조선족이 밀집 거주하는 현상에 대해 한국인들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즉 한국인들은 이들 지역이 차이나타운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지만, 조선족의 밀집화로 인해 집을 소유한 한국인들은 안정적으로 집세를 받을 수 있어 반기고 있다. 즉, 한국인들은 조선족의 밀집화로 인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그 불편보다 조선족의 유입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기에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한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조선족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언제까지나 크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지만 현재 서울 서남부권에 이주한 조선족들 중 상당수가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하거나 이혼 등으로 가족해체를 경험하고 있다. 가족의 해체가 사회적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위협요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인터뷰어 F의 경우도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온 아버지가 사망한 가족의 구성원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중국에서 다니던 기술학교(고등학교) 2학년을 휴학하고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입국했다. F2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그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모님을 돕고 싶어 하지만, 취업을 할 수 없는 F2비자로 인해 누나로부터 용돈을 받으며 현재 F-4비자를 위한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다. F를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어머니는 직업을 구한다며 가끔씩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한다. 이 과정 속에서 F의 일상생활은 상당부분 방치되고 있다.

직업학원을 다니는 F의 생활의 형태는 이전의 노동이주 조선족들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즉, 예전의 조선족들이 어떻게 해서든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려 한테 반해, F씨는 F-4비자를 취득해 공장에 취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부족하다. 그의 일상은 룸펜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9시에 일어나 밤을 먹

고, 12시까지 학원에서 공부 한 후, 집에 와서는 주로 중국 쪽 텔레비전도 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화 등을 보고, 게임을 하면서 누나가 퇴근할 때까지 홀로 지낸다. 이 과정에서 자격증 시험을 위한 예습이나 복습 등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친구를 만나 PC방에 가서 게임도 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며 즐긴다. F의 친구들 중에는 술을 먹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술집보다는 한국인들이 출입하지 않은 중국 PC방과 노래방 등을 자주 이용한다.

그렇다면 조선족들은 어떻게 한국에서 이처럼 쉽게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 인터뷰어 E와 F를 통해 그 비밀을 알 수 있었다. 조선족은 그들만의 인터넷 망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한국인들이 '카카오톡'이라는 SNS 서비스를 통해 관계를 맺듯이 조선족들도 'QQ'라는 중국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소통을 하고 있다. 조선족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에 한국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은 굳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E씨의 경우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조선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점차 뚜렷이 표출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등도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조선족의 청년세대와 청소년들이 이전 세대와 달리 자신들만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그들만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대립동이란 공간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 조선족 젊은 세대의 행위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상당부분이 수면아래 감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2. 조선족과 내국인과의 관계 양상

앞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내국인들은 조선족의 밀집거주에 대해 양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전에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주거지였던 가리봉동과 대림동, 구로동은 1980년대 후반 국내 수출부진과 임금상승 등으로 구로공단의 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동자들이 대거 빠져나가 주택의 공실률이 높았고, 지역의 상권도 침체되는 등 한때 어려움

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중국에서 이주한 조선족이 정착하면서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중국 사람들이 비게 되면 아마 텅텅 빌꺼야. 대림2동이. 중국사람 때문에 안 죽은거야. (중략) 상가가 될 집도 아닌데도 막 방을 막 뜯어가지고 가게 만들어 가지고 세놓고. (중략) 권리금도 중앙시장 쪽은 그렇게 올랐대요. 저기 뭐, 미장원 하다가 거기, 권리금 하나 안주고 들어갔는데, 7천만 원을 받고 나갔어. 중국사람한테 팔고..... 어차피 한국 가게들은 있어도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게들을 자기네들끼리 사고팔고 해서 한국인들은 여기서 가게하기 힘들어(인터뷰어 A).

조선족이 대량 유입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자 이들의 유입을 반기는 한국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조선족들을 반기는 이들은 대부분이 그들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다. 가령 부동산 중개업자, 간판가게, 장판가게, 마트, 옷가게, 그릇가게 등 생필품 판매자 등이 이 집단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 중에서도 조선족의 주택 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전보다 중개수수료 수입이 늘어난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그들이 상가를 개업하거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 짐에 따라 호황을 맞이한 간판가게와 장판가게의 사업자들은 조선족들의 유입을 환영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족의 유입을 환영하는 이들 중 주택이나 상가에 세를 놓은 임대인들은 비록 서울 서남부권에 거주하지 않지만, 조선족의 유입을 매우 환영한다. 즉 가리봉동과 구로동, 그리고 대림동 등에 집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몰려드는 조선족들로 인해 기존의 주택뿐만 아니라, 반지하 또는 지하방, 옥탑방 등을 개조하여 경제적 이득을 올리고 있다. 이들 임대업자들은 조선족들로부터 얻은 경제적 재화를 바탕으로 서울 서남부권을 떠나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거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서울 서남부권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모두 다 조선족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한국인들은 조선족의 밀집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조선족의 무질서한 생활 풍습에 대

해 경멸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무질서, 무책임 이런 거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담배도 피다가 딱, 그리고 쓰레기도 눈앞에서 치우고 있는데, 그 앞에다 버리고 가고.....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상의 벗고 다니는, 아니 완전 탈의는 아니더라도 배 내놓고 다니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못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니까..... 그러니까 기초질서 의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차가 뒤에서 와도 천천히 중앙선 점거하고 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인터뷰어 B).

인터뷰어 A는 이러한 조선족의 생활 태도에 대해 서울서남부권의 민중경관이 조선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이주해온 소수자란 인식을 망각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즉 그에 따르면 조선족들이 분산되어 살면 어떻게든 한국의 문화나 법을 준수하려고 하지만, 너무 많이 모여 살기에 굳이 거주장스러운 한국의 법 등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국인들과 조선족간의 갈등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이 쓰레기 투기 문제인데, 중국에서는 종량제 등에 대한 개념이 없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그들에게 한국인들은 계몽보다는 무조건적인 금지와 비난만을 쏟아 붓고 더 나아가서는 야만인으로 취급하는데, 이것은 너무하다는 것이다.

참여관찰 결과 서울시 서남부권 조선족 밀집지역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비록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조선족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한 이들을 중심으로 점차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조선족과 한국인이 노인정을 따로 사용하고 있는 대립동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선족이 내국인들과 관계를 통해 느끼고 있는 갈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폭력에 의한 모멸감이다.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한국인들의 의식·무의식적 언어폭력에 모멸감과 함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저해되고 있음을 이야기 한다. 둘째, 중국 동포에 대한 제도적 차별에 대한 불만이다. 중국동포들은 자신들이 임금과 보험 혜택 등에서

한국인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귀화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신분상의 불합리함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조선족과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법대로 하자'고 말하는데, 이를 조선족들은 자신들의 신분상 불리함에 대한 한국인들의 횡포로 인식하고 있다.

3. 조선족 사회 내부의 관계

참여관찰 과정에서는 조선족 사회 내부에서도 상당한 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양상은 뚜렷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어쨌든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소수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족 사회 내부에서도 미묘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예 조금 있어요. 예, 대체로 요녕성 사람들은 숫자가 너무 작아서 좀 이게 뭐 말 빨이 오르지 않는데, 흑룡강성하고 연변사람들 사이에는 시비가 생겨요, 여기 뭐 전라도하고 경상도 식으로, 흑룡강에 하면 연변사람이 아니야 연변사람은 또 흑룡강하면 무슨, 아니야, 또 이래서 이런 게 좀, (중략) 연변에 연변사람들 숫자가 많고 연변은 자치주고, 너 흑룡강 너 주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는 흑룡강에서 정부야 뭐야. 우리는 한개 자치주라는 게 정부예요. 그니까 대학이 있고 병원이 있고, 그리고 공안이 있고, 우리는 갖출 것 다 갖췄어. 참새 작아도 오장육부 있는 것처럼, 그니까 흑룡강 사람들 우리가 말하면 우린 말도 안돼, 너 됐어, 그만해, 이런다고 우리는 이런 것 다 가졌는데, 너희는 뭐 차꾸 말해, 우리는 시끄러 아니 말해(인터뷰어 A).

연변 사람들 숫자가 많다고 막 다른 동네 사람 무시해요. 우리 아저씨가 그러는데, 연변 사람들은 다른 지역 출신 사람들과 술도 안 마신다고 해요(인터뷰어 B).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출신 지역 간의 사소한 갈등은 존재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조선족 사이에서도 출신지에 따른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¹⁹⁾ 다시 말해 조선족 사이에서 동북3성, 즉 중국

동북쪽에 위치한 조선족이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출신의 조선족은 성격이 매우 사납다고 본다. 또한 조선족이 자치를 하고 있는 자치주인 옌뱌 조선족 자치주의 주도(州都)인 옌지(延吉)시의 조선족은 ‘잔머리를 끊임없이 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지 못 한다’는 편견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초기 조선족 입국자들의 입국 기점이었던 위해(威海, 웨이하이시)가 위치한 산둥반도, 상하이 등의 중국 동남부 해안가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성격이 너무 느긋하여 모든 일처리가 느리고 게으르다’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 같은 이미지는 이들이 이주하기 전인 중국에서 이미 형성되었던 것으로, 한국으로 이들이 이주한 후에도 출신지에 따른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같은 민족 간에도 경계 짓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향우회와 각종 친목회로 외현되고 있다.

최근, 조선족 밀집거주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사항은 급격한 가족 해체이다. 인터뷰B씨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조선족의 상당수가 현재 가족이 아닌 이성(異性)과 동거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단지 경제적 이유로 인해 동거를 시작한 이들은 체류 기간이 끝나면 각자 중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조선족 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중국의 출신지에서는 점점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으로 이주를 한 경우 이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한국에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²⁰⁾ 이러한 출신지에서의 변화를 고려해 보았을 때, 서울 서남부권에서도 이혼한 이주자들이 이곳에서 동거를 하던 사람과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주거모습뿐만 아니라 일하는 시간대가 다른 사람들은 시간제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하나의 거주공간을 공유하는 사례도 있다. 그런데 조선족의 가족해체나 이성간의 동거는 조선족의 도덕적 타락 보다는 급등한 이들 지역의 임대료 상승과도 관련이 있다. 즉 현재 서울 서남부권에는 주택 공급량을 넘어서는 조선족들이 이주함으로써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19) 이화영, 같은 논문, 110-111쪽.

20) 이미애, 앞의 논문, 51-53쪽.

즉, 조선족들은 한국에서 소수자로 살아가기 위해 나름의 협력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차별과 멸시를 극복하기 위해 한족 등과의 경제적 협력 등을 비롯한 동료의식을 형성하고 있으며, 둘째 동족 네트워크를 통해 직업 등에서 강력한 협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셋째 출신 지역에 따른 미묘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넷째 취약한 거주조건에 따른 조선족 특유의 문화가 발생하고 있다. 가령, 경조사 등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4. 조선족에 대한 표상체계와 그 영향

현재 국내 주류사회의 미디어는 가리봉동과 대림동을 ‘조선족’, 또는 ‘중국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정의하며 ‘서울 속 연변’, ‘중국 거리’, ‘서울의 차이나타운’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미디어에서 재현하는 중국 국적 이주자들의 장소로서 대림2동은 이곳으로 이주하는 대부분의 조선족과 한족의 기원지인 연변지역, 동북3성 지역과 비슷한 지역으로 비유되며, 가리봉동과 대림동의 장소성이 그들의 기원지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재현체계는 한국인 선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겪지 않은 이주자와의 갈등도 마치 그들이 겪은 것처럼 느끼게 하여 두 집단 간의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즉 한국의 저소득층과 중·장년층이 맡을 수 있는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것이다.²¹⁾ 조선족의 값싼 노동력과의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 실업으로 떨어진 저소득층은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의 단절, 정치적 소외와 무관심 그리고 외국인 혐오와 같은 각종 병리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²²⁾ 그 구체적인 행위가 자신들보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조선족에 대한 혐오의식으로 발현된다.

① 사실 우리 친척들이 저를 한국 남자랑 결혼시키려고 소개해서 만난 적도

21) Kang, Jingu & Park, Yong-jun, "A Study of Korean Chinese Ethnic Cluster and Living Space Expansion - Focused on the case of Daelim-dong, Yeongdeungpo-gu, Seoul -".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Vol.20, 2015, 258- 259.

22) Walzer. M, *Arguing About War*, Yale University Press, 2004 참조.

있어요. 너무 편견이 많을 때잖아요. 이때는 뉴스 나오면 위장결혼해서 도망가는 거 나오고, 고사리 나오면 중국에 썩은 게 나오고 그럴 때라서, 중국하면 안 좋은 것만 나올 때였어요. 우리 당숙 소개로 은행 직원을 소개 받았어요. (중략) 그렇게 두 달 정도 사귀니까 자기네 집으로 한번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엄마 분이 자매가 넷인데, 이모들이 오라고 했나보죠. 그날 이모들 네 명이 앉아 있는데 제가 완전 동물 취급 받더라고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 그때 나는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B씨 인터뷰).

② 중국교포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거기서는 못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약하게 보는 것도 많았죠, 처음에는. 우리가 겪어보면, 정말 이런 줄 몰랐다, 중국 사람들 가난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 한번 가보시라고, 우리가 중국에서 밥 못 먹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돈 벌기가 좋고 이러니까 돈 좀 더 벌려고 왔지, 우리 거기서 밥 못 먹고 사는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죠(C씨 인터뷰).

③ 욕은 뭐, xx년 xx새끼, xxx 같은..... 막 이렇게 욕해요. 아니 일을 조금 못하는데 뭐, 담배를 오래 피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 빨리 해야 돼, 너 일당 받고... 이 xxx, 왜 계속 서서 담배만 피워, 너 저기 빨리 뭐 가져와, 비늘 가져와, 타일 가져와, 폼 가져와, 이래 막 욕 얻어먹지. 근데 그때 욕 얻어먹으면 대들면 안 돼요. 쫓겨나면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그냥 좋아서 견디는 게 아니라 안 좋아도 견디죠(A씨 인터뷰).

인용문 ①, ②, ③은 조선족들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신분상의 불합리에서 오는 차별 이외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들로부터 적지 않은 멸시와 차별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용문 ①에 등장한 B씨는 한국인으로부터 한 사람의 개인으로 평가받기 보다는 혐오 대상인 집단과 동일시됨으로써 모욕감을 경험하게 된다. 인용문 ②는 조선족에 대한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씨에 따르면 많은 한국인들은 처음 조선족을 대할 때, 굶주림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로 여긴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조선족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하는 조선족으로 하여금 자존감을 훼손시킨다.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조선족들은 일상생활에서조차 한국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등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인용문 ③은 조선족들이 경험하게 되는 전형

적인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중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언어폭력을 경험한 조선족들은 모욕감과 동시에 한국인들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조선족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 의식이 경제적 편차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중산층과 저소득층 모두를 경험한 C씨에 따르면, 중산층이나 상류층의 경우 조선족에 대한 직접적인 반감이나 편견은커녕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에 식당 일을 하는 종업원들은 대부분 조선족을 무시하고 멸시했다고 한다. 이것은 실업으로 인해 사회에서 분리된 개인으로 전락하게 된 이들이 극우적이거나 근본주의 또는 외국인 혐오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는 Walzer의 견해가 한국사회에서도 이미 뿌리내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²³⁾

VI. 맺음말

앞서 국내 거주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에 정착하게 된 배경과 그들의 사회·경제·문화적 지위와 실태를 선행연구를 비롯하여, 조선족 밀집지역 참여관찰과 인터뷰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와 버젓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지도 20여년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짧지 않은 정착의 역사에 비해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초라하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고국을 잠시 떠났던 그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욱 그들에게 힘든 시련의 시간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에는 1992년 한·중수교가 체결되고 조선족들의 국내 이주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조선족 동포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충분한 정책적 준비를 하지 못한 것과, 이에 따른 조선족 동포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염증이 혼재되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조선족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이자 인격체로 존중받고 정착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내국인의 조선족 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국내 거주 타 외국인과 달리 조선족 동포들은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

23) Kang, Jingu & Park, Yong-jun, *op. cit.* 260-261.

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들을 맞이하기는커녕 불편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들에 대한 법적·행정적인 토대의 마련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 시점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요구되는 것은 내국인과 한국 거주 조선족 동포들의 상호 인식변화이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국내 거주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법적 인 지위와 신분의 보장, 지원이 따른다고 해도 내국인과 국내 거주 조선족들의 상호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무용지물이 된다. 먼저 주류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세계화의 흐름에 걸맞게 성장해야 한다. 조선족 동포들은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역사를 공유한 민족이다. 이러한 특수성에 기인하여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그들을 단순히 ‘돈 벌러 온 사람’, ‘어쨌든 중국인’, ‘잠재적 범죄자’, ‘사회 부적응자’ 등과 같은 부정적인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이 요구되며, 국내 거주 조선족 동포들 또한 당당하게 한 걸음 한국 사회로 나와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선족 동포들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반경에서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조선족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데 분명 큰 문제점이다. 이것은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전혀 녹아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양상이 지속되면 국내 거주 조선족 동포들에게 차별과 편견 그리고 불평등을 느끼게 할 것이고 프랑스를 비롯한 앞선 다른 다문화 국가들과 같이 몇 년 혹은 몇 십 년 뒤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소요사태나 폭동, 테러 등을 동반한 분노 표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조선족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착을 위한 사증 제도 개선, 조선족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 교육기관 마련, 교포회관 건립, 조선족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마련 등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첫째, 내국인과 조선족 동포 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고 재중동포에 관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접근하기가 쉽도록 해서 한국 사람들이 재중 동포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

를 보다 객관적으로 정립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조선족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 발생 후 대처법을 강구하기 전에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사람이 사전에 입국하지 않도록 사전 선별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재중 동포 자본의 건전한 성장과 축적을 돕는 것이다. 조선족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모두 합법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불법적인 자본축적과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필시 범죄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기 마련이고 이는 조선족 이미지 개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연구논문

- 가상준 외 2인,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감과 관용」, 『분쟁해결연구』 12(1), 2014.
- 김석배, 「중국 조선족의 문화특질」, 『한국동북이논총』 4, 1997.
- 김 욱, 「중국 조선족의 한국, 한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김현선, 「한국체류 조선족의 밀집거주 지역과 정주의식: 서울시 구로·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87, 2010.
- 박세훈·이영아, 「조선족의 공간집적과 지역정체성의 정치-구로구 가리봉동 사례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3(2), 2010.
- 박 우, 「한국 체류 조선족 ‘단체’의 변화와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 『경제와사회』 91, 2011.
- 박재영, 「유럽 다문화사회의 문화충돌: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다문화 연구』 창간호, 2008.
- 방성훈,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의 특성과 주거지 분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가리봉동과 자양동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2014.
- 서울역사박물관, 『가리봉동: 구로공단 배후지에서 다문화의 공간으로』, 서울역사 박물관, 2013.
- 설동훈,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 -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전망』 52, 2002.
- 설동훈, 「외국인노동자 차별과 시민권」, 『시민과세계』 2권, 2002.
- 안재섭, 「서울시 거주 중국 조선족의 사회, 공간적 연결망: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9(4), 2009.
- 원종서, 「서울시 거주 한국계 중국인의 주거지역 선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미애, 「가리봉동 중국거리에서의 조선족 여성의 위치성에 대한 문화, 지리적 연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민주, 「재중동포의 상업 활동과 정체성 형성: 가리봉동 현장 연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석준, 「조선족 밀집지의 형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서울시 가리봉동과 대림2동, 자양4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정은, 「소수자의 민주주의: 조선족 동포들의 민주주의 경험과 실천-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저항과 개입을 중심으로」, 『지역과 전망』 29, 2013.
- 이정은, 「재중동포 사회의 차이와 소통의 문화정치: 한국 내 조선족 커뮤니티의 구성과 교류」, 『민주주의와 인권』 11(3), 2011.
- 이정현, 「민족별 외국인 집단 거주지의 형성과 발달: 서울시 대림동 소재 중국 국적인 거주지를 사례로」,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화영, 「중국국적 이주자 밀집지역의 엔클레이브화와 계도화에 대한 연구: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 임광순, 「국내 조선족 범죄의 실제와 방향성」, 『역사비평』 111, 2015.
- 한성미·임승빈, 「소수민족집단지류지역으로서 연변거리의 장소성 형성요인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6(6), 2009.
- Kang, Jingu & Park, Yong-jun, "A Study of Korean Chinese Ethnic Cluster and Living Space Expansion-Focused on the case of Daelim-dong, Yeongdeungpo-gu, Seoul-".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Vol.20, 2015.
- Walzer, M, *Arguing About War*, Yale University Press, 2004.
- Wei, Hanbin, 「다문화 사회형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시 가리봉동 중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 신문기사

- 뉴시스, 2007.03.06.
세계일보, 2007.12.02.
중앙일보, 2008.02.04.

Abstract

In-Depth Study for the Cause of Formation of Korean-Chinese Ethnic Cluster in Seoul and for the Living Space Expansion

Park, Jae-Young*·Kang, Jin-Gu**

There are approximately 1.86 million foreigners living in Korea in November 2015, and Korea enters radically into the multicultural society. Of foreigners who lives in Korea, the Korean-Chinese (Chaoxianzu) have around 33%(615,000), and their places of residence focuses mainly on the area of Seoul and capital area such as Garibong-dong, Guro-dong, Daelim-dong. There forms a commercial district for Korean-Chinese, and it expands into the area such as Jayang-dong, Shinlim-dong, Guri-si. As the high crowding and basement of Korean-Chinese society grows stronger, as we may see the formation of commercial district such a wide area, there shows various aspects of conflict such as growing conflicts between the natives and Korean-Chinese or inner circle among Korean-Chinese. Therefore in the research, we try to overcome the limit of precedent study for Korean-Chinese, and we proceed the methods like literature research, in-depth interviews,

* The first author, Research Prof. of Cultural Contents & Technology Institute of Chung-Ang Univ.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 of Cultural Contents & Technology Institute of Chung-Ang Univ.

and participant observation of the study for the cause of formation of Korean-Chinese ethnic cluster in Seoul and for the living space expansion.

Different from other foreign residents, Korean-Chinese has the peculiar historical background. But we Koreans watches them with uncomfortable uncomfortable eyes, far from welcoming them. It is important to attract the change of perception, but the essential prerequisite is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formation for them. As the result shows, the point that Korean-Chinese forms their own network and live in their own inner circle is the evidence of not smooth consolidation for Korean society. If the situation of those problems went longer, Korean-Chinese who lived in Korean society could feel the discrimination, prejudice, failure, anger and inequality, and it may expand into the social disturbance, violence, and terrorism as the multicultural society like France.

* Key Words : Korean-Chinese, overpopulated area, residential district, Garibong-dong, Guro-dong, Daelim-dong

교신 : 강진구 06974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E-Mail: kikpo@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6. 08. 26.

심사완료일 2016. 10. 04.

게재확정일 2016. 10. 07.

연구원 소식

취 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규정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탐라문화』 간행 및 심사 규정

『탐라문화』 투고 및 편집 규정

『탐라문화』 편집위원회 규정

